



한정적 목사의 믿음을 배우자

2000년
5월 15일
제 21 호

(1998년 9월 15일 창간)

춘천성시신문

- 전시민 전영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원운동

발행·인쇄인: 조남진 편집인: 조충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 (0361)256-1260-1 FAX(0361)257-1260

5월 가정의 달 맞아 파란글 꽃그림 잔치 연 춘천월드비전

- 제78회 어린이날 기념 5월5일 어린이회관 야외공연장에서 -
- 춘천시내 30개 초등학교 참가 제11회 글,그림,동요대회 가져 -

World Vision 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순환장로)에서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춘천어린이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제 78회 어린이날 행사와 함께 시내 30개 초등학교 1천여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동요부르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대회는 월드비전이 주관해 11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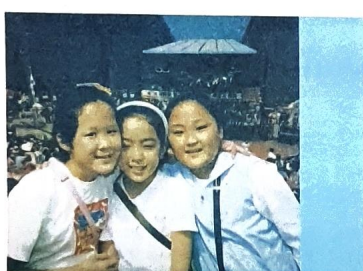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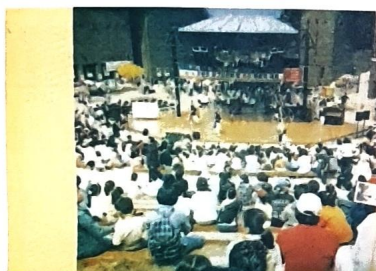
참가 어린이들은 본 행사를 통해 평소 갖고있던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고 이러한 기회를 토대로 자기소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월드비전의 사업은 높이 평가되어 아할 것이다. 월드비전의 전직원은 행사진행을 위해 공휴일을 반납하고 참가 어린이가족과 수많은 차량으로 입주의 여지가 없는 야외공연장 정리에 수고했으며 갑작스레 내린 비를 맞으면서 헌신적인 봉사로 질서정연하

게 행사를 마무리한 데 대해 대회 참가자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각 부문별 입상자를 보면

【사상대위】
고학년부 - 남부초등학교 6년 이윤희
중학년부 - 남부초등학교 6년 김현호
저학년부 - 후평초등학교 1년 안수용
부안초등학교 3년 전은비
【백일장】
시부문 장원 - 동부초등학교 3년 엄예지
남부초등학교 6년 남혜민

산문부문 장원 - 부안초등학교 3년 허성아
소양초등학교 6년 한예진
이상 4명은 춘천시장의 표창을 수상했으며

【동요부르기】
중장부문 대상 - 남부초등학교 6년 윤이나, 장주희, 강우진, 박이선, 안성미, 정소현 4년 박지혜, 변종영
독창부문 대상 - 효계초등학교 6년 고한지는 춘천시 아동위원회 위원장의 표창을 받았다.



부활의 새아침에 울려퍼진 할렐루야 찬양

춘천지역 기독교인들은 새천년 첫번째 맞는 부활절 새벽에 시청광장에 모여 부활절 예배로 새해를 열고 새동계 출발을 절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마음을 다짐하며 환하게 불을 밝혔다. 차디찬 밤바닥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소리높여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환영찬 회장 목사의 부활 메시지를 통하여 부활신앙으로 재무장하는 기회를 가졌다. 부활의 기쁨과 열기는 새벽 시청광장의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으며 우렁차게 울려 퍼진 찬송은 불신앙의 어두운 도성 구

석구석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이날 예배는 김동휘 목사의 사회로 임신영 목사, 박상호 목사의 국가와 민족, 남북통일, 춘천성시화를 위한 특별기도, 허종구 장로연합회장의 대기도, 윤학원 사관의 성경봉독, 환영찬 회장목사의 설교, 조영호 목사의 헌금기도, 중앙성결교회 성가대 찬양과 윤철중 중경회장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으며 춘천시장 배계설 장로의 축사와 류중수 국회의원, 한승수 국회의원의 당선자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이날 드려진 헌금은 일선 국군장병들의 복음화를 위해 쓰여진다.



춘천성시화를 위한 총력전도대회가 열린다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황영찬 목사)는 1972년 한국 최초로 성시화(聖市化)운동을 시작한 도시다운 긍지와 자존심을 세우고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교회, 모든 선교회가 역할을 맡아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춘천시민은 한사람도 지옥에 떨어

지지 않도록 하자는 캠페인 프레임을 걸고 총력전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7월7일부터 9일까지 열리게 될 총력전도는 춘천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대학생성서연합회가 주관하며 C.C.C. 전국대학생성서대회에서

잘 훈련된 1천명의 전도자를 지원하고 춘천지역 1백교회에서 선정된 1천명이 함께 3일동안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총력전도를 하게 되며 9일 저녁에는 결산자들과 전도자, 춘천지역 성도들이 다함께 모여 춘천호반실내체육관에서 '한명 부흥성서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농협강원지역본부 사랑의 장기기증 업무 협조 조인

- 도내 127개 농협 장기기증 안내문 신청접수 비치 -
- 18개 시군 보건소·보건진료소 안내창구 담당자 교육 -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강원지역본부 사무국은 5월3일 도내 18개 시군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장기기증 안내창구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4일 오전11시 농협강원지역본부와 업무협조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다. 앞으로 산하 127개 농협 지점과

출장소, 단위조합에 장기기증 포스터를 게시하고 탁상용 홍보비치대와 안내유인물, 신청접수 비치 협력으로 지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및 상담기관이 연대하여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기증에 대한 문의는 도내 각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농협지점이

나 농협출장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장기기증 강원지역본부에 연락하면 알 수 있다. 24시간 상담 1588-1589 (지역번호없이) (0371) 766-0440 / 011-899-0126 사무국장 조정진

춘천기독교 교역자 연합회장 권오서 목사



지난 4월10일 춘천기독교 교역자연합회 총회에서 제40대 연합회장으로 선출된 춘천중앙감리교회 권오서(權五瑞)목사는 75년

감리교 신학대학 78년 동대학원을 거쳐 85-86년 미국 클레아몬트에서 목회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75-82년 원주부설교회 담임, 서울종로교회 부목사 82-86년 미국유학을 마치고 서울은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다 88년 4월3일 춘천중앙교회 26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권목사님은 학문과 능력을 겸비

한 보기도문 인제로서 본교회 목회 뿐 아니라 초교파 연합사역 및 기단체 선교회 등 폭넓은 활동을 감당하고 인도에 두교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감리신대학, 협성신대학 강사, CBS이청자 자원위원장, 춘천YMCA이사, KNCC실행위원, 춘천지방발전 조정위원, 감신대 객원교수, 도경발전 경복실장을 역임하고 있다.

성시화 사역을 돕는 아름다운 교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
창춘교회

담임목사 정웅진

교육전도사: 김정희
원로장로: 김은수
장로: 이명순, 박상운, 전병환, 차문복, 김순환, 심진환

주소: 춘천군 내면 원촌리
(0361) 432-6073/0182

귀금속 예술품 전문점
솔로몬

저렴한 가격
기독교인 환영합니다

대표 이의래 · 조순욱 집사
(순복음춘천교회 엘코이침실당 소속)

오시는 길: 춘천미도파 백화점 내 1층
(0361) 243-1423 / 243-3634

창립 1주년 감사
홍천군 신우회

지도목사 김광섭 (홍천회임정로교회)
회장 김차경
부회장 김동기 원은숙
총무 이상순
서기회계 황일동 조직부장 전영진
신교부장 조복원 음악부장 정문봉
친교부장 서옥순 봉사부장 김희자
감사 양태학 김기수

주소: 홍천군 회양 181 홍천군청신우회
☎ (0366) 430-2367 / 018-373-5561 이상순 장로

사설

복음전도의 지상명령에 발맞추고 참가하자

역사적인 춘천시민 총회 전도대회가 오는 7월7일부터 춘천기독교연합회와 대학생선교연합회를 주축으로 힘을 합쳐 3일동안 전개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춘천시민은 한사람도 지옥가지 못하게 하라는 전도명령에 발맞추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것이며 성경의 역사를 통해 협력할 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은 "헬스"신자들을 보는 것 같이 마음이 흐트러진다. 그동안 입만 열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달라주고 있는 것을 뵈어내던 기도자들이 이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모든 수고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한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사실상 우리들은 지금까지 나만을 위한 전신적 에이스트로 살아왔으며 교회 안에서 귀족적인 모습으로 나의 회개만을 추구해 왔음을 반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요나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도 다시 세 배 맴돌아서 인생의 안일을 누리고자 했으나 잘못을 회개하고 멸망의 문턱에 서있는 나쁘게 살았음을 위해 회개

계의 매제를 담대하게 외쳐 구원을 얻게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바로 깨닫고 남이 아니라는 현실적, 수동적인 태도 벗어나 내가 차지 않으면 지옥행의 생명들이 많아진다는 절박한 진리로 모든 성도들이 요나처럼 바움처럼 발맞추고 나가기 바란다. 또한 이번 전도대회가 하나의 전도운동으로 일시적이거나 일부교회가 참가하고 마는 실효성 없는 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열심히 무장해야 할 것이다. 전도는 임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세상에 보물을 받은 것은 여호와와 전령사로 사 파송받은 지역을 살려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시민들의 도범이 되어야 한다. 춘천지역의 4만5백여 그리스도인들이 대대적으로 복음을 위해 함께 일어선다면 반드시 놀라운 성과를 거둘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짐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구원받은 백성을 찾아 오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샘밭침례교회 경로잔치 배설

샘밭침례교회(정삼교 목사)는 5월21일 오후1시 교회당에서 지역 어르신 70명을 초청, 동배 경로잔치를 열었다.

1953년 교회를 세우고 44년 만인 97년11월26일 같은 자리에 현대교회당을 건축하고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려는 뜻을 이룩하여 이루어졌다고 정목사는 말했다.

이날 초청한 어르신들은 맛있는 식사와

행운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학생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또 임예리 집사의 복지지원을 받아 성도들의 봉사로 노인회관을 도배하고 영세가정 5가구를 선정, 도배해 주므로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7월 총력전도위한 대학생 선교연 대표회의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황영환목사)는 5월16일 오후7시 두산리조트에서 오는 7월 춘천지역 총력전도대회 준비를 위해 연합회 임원 및 각 대학선교회 대표들과

협의회를 갖고 조직을 검토하고 협력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날 아침 식사비는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가 지원, 연합회사에 합의 되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임원수련회가 열렸다

강리교 남선교회 전국연합회(회장 이기종장로)는 5월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 여선교회에서 열린 180여명이 함께 모여 수련회를 가졌으며 동부연에서는 59명, 춘천지역 임원은 9명이 참석했

다. (김기태 장로, 최계자 권사, 현복희 권사, 유태희 장로, 김아리 권사, 심민섭 장로, 허광웅 장로, 최금식 권사)

聖市漫評



김춘배

5월14일 춘천시민총회, 달에프의 봄이네 주춧돌이다

벤게메렌 교수가 본 한국교회 문제와 처방

- 담임목사 권력비대, 유교적 계층주의사상 영향 -
- 미국적 교회성장 모델 무조건 수용은 위험 -
- 목사우상화 경계... 친구같은 목회자 필요 -

"한국교회 담임목사들의 권력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 있다. 여기엔 유교적인 계층주의 사상이 큰 몫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교회의 전통이 꼭 성경에 적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아무리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통로는 언제나 성경이다. 바로 이 부분이 한국교회가 100년 역사 속에서 진지하게 질문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의 구약학자 벤게메렌 교수가 그동안 한국의 목회자들과 교제하면서 내린 나름대로의 한국교회 처방이다. 딱딱한 전통이 오히려 성경의 권위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제임스 페거가 미국교회를 평가한 것처럼 한국교회는 더 많은 신학이 필요하게 아니라 성도들과 친구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강해할 수 있는 목회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목회모델에 대한 필요성을 의미한다. 주님은 사람들과 함께 섞이셨고 사람들 속에서 일하셨다. 한국의 유교적 계층주의는 이혼들에 대해 존경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자칫 목사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그는 또 프로그램에 부화뇌동하는 현대교회의 경박함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미국교회와 모델을 보면서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실지여 실패할 모델조차 수입하기까지 한다.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운영이 지닌 단점은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단순하다는 데 있다. 말씀이나 사람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프로그램이 아닌 성경의 권위를 대변한다든지 성경과 대등한 것처럼 오해되는 현실은 또 다시 종교교회의 위험을 낳을 우려마저 보인다." 벤게메렌 교수는 시종 말씀이 이론, 성경이 아니라면 그것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구약의 설교와 관련된 그는 다양한 해석도구의 사용을 역설했다.

"구약을 보는 여러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지금까지 활용되는 다양한 방법의 접근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전부를 알기에 부족하다. 문화적인 접근에서 역사적, 문학적, 언어학적, 신학적 접근 등 다양한 도구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구약사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다."

한국홀리클럽 전국연합회 대표자회의 개최

한국홀리클럽(대표회장 신윤표목사)은 4월29일 오후3시 대전홀리클럽에서 전국연합회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춘천 청주 대구 인천 천안 부산 대전 홀리클럽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춘

천에서는 이학규 장로, 신종철 총무가 참석했다.

연합회는 사업과 회비부담 문제와 춘천 홀리클럽 창립4주년 기념행사를 협의했다.

장로연합회 임원 순방예배 드림

강리교 동부연회 장로연합회(회장 유태희장로)는 5월7일 오후7시 석사강리교회에서 임원순방 헌신예배를 드리고 사업계획을 협의하였다.

7월 6일부터 8일 황성상리조트에서 전국수련회를 개최하고 회보제작, 원로장로 세미나, 분기별로 순방헌신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교계단신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강원노회**(노회장 김승걸목사)는 5월6일 오후3시 15시안 여호와니교회(김내현목사)에서 신병 302명을 대상으로 진중세례식을 거행하고 총 552명의 군인에게 선물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세례식을 위해 김승걸목사(북촌전교회), 박상호목사(재일교회), 박남서목사(광덕교회)와 20여명의 목사, 장로가 참석했다.
- ◆**춘천 장로교 연합예배 및 제육대회**가 5월11일 오전9시30분 춘천농촌 운동장에서 시교회예배를 시작으로 개최되어 친교와 화합의 장을 이뤘다.
- ◆**춘천석사강리교회**(임태장 목사)는 5월21일 주일 저녁 문화부 음악위원 주체, 총남신교회 후원으로 가정의 달 기념 찬양대회를 가졌다.
- ◆**순복음춘천교회**(김주환 목사)는 5월21일 오전11시 1.2.3부 합동으로 "사랑의 축제예배"를 드리고 오후4시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례선교단의 "대선자 초청 전도공연"과 만찬을 가졌다.
- ◆**춘천제일장로교회**(박상호 목사)는 4월24일부터 27일까지 본교회당에서 대전가장교회 김성인 목사를 강사로 초청 전도성령부흥회가 열렸으며 5월7일 설립 61주년을 맞아 낙원동 일대 이웃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14일 속초지방으로 65세이상 부모님을 위로친교여행 보내드리는 행사를 가졌다.
- ◆**춘천중앙장로교회**(권오서목사)는 5월21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교인 찬양콘전지를 개최하고 총13개팀이 참가하여 다양한 재능을 발표하고 친교한다. 문의처 255-3561~4
- ◆**동부장로교회**(윤재호 목사)여전도회는 5월2일 춘천신학대학원 결식 신학생 및 노회 목사 후보생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만찬으로 격려했으며 5일 오전10시 강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5개 늘푸른교회와 연합으로 제육대회를 열고 친교하였다.
- ◆**평화강리교회**(한 군 목사)는 5월8일부터 12일까지 최철만 목사를 강사로 초청 해외선교를 위한 제1회 선교학교를 개강했다.
- ◆**춘천신성강리교회**(김장수 목사)제2청년부는 5월21일 본교회당에서전교인 찬양경연대회를 개최한다.
- ◆**춘천동부장로교회**(임신영 목사)는 5월7일 오후4시 서울광성교회 김강민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임신영 목사의 사회로 새생전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 ◆**동양성결교회**와 **대덕청년부**는 4월20일 성서화기도모임에 참석하여 심성우 부목사의 설교와 김지경 장로의 기도, 청년부 특송으로 예배를 주관했다.

독자투고

어머니 은혜

이 세상엔 제발 가는 정 하나 말 하라하면 어머니!
이 세상엔 제발 사랑 말 하라하면 어머니!
이 세상엔 그리움 하나 말 하라하면 어머니!
이 세상엔 그대 마음 하나 말 하라하면 어머니!

바다가 깊듯이
너무 큰 사랑이기에
어머니 사랑을 잊고말 삼니다
고마움을 모르고 삼니다
무지한 자식들이
어리석은 자식들이
어머니의 은혜를

-어머니 날에 올립니다-



명 위 식 목사·시인
예수사랑교단임원
월간 문학세계로 등단

새얼굴

석사강리교회 김세운 부목사



지난 4월 동부연회 춘천남지방 석사강리교회에 부임한 김세운(金世雲)목사는 70년 10월30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출생 89년 대구 달성고를 거쳐 97-99년 강리교 신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97년 3월부터 강리교 경기연회 남양주지방 조안교회 전도사를 지냈으며 금년 3월 경기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춘천지역 사역은 석사강리교회 처음이며 낯선지만 주님 안에서 담임목사님의 지도 아래 석사강리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독서와 종이접기가 취미라는 김목사의 좌우명은 "전신하게 살자"이며 부인 이은영 사모와 두 살난 딸을 두고 있다.

직장선교연합회장 김용배 장로



지난 4월15일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총회에서 연합회장에 선출된 김용배 장로는 63년 성수고를 거쳐 방송대를 졸업 69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독실한 믿음의 소유자인 그는 강원도교육청 총무담당으로 교육행정직선교회 회장을 맡아 선교회를 잘 이끌고 있으며 춘천소양성결교회 사무장로서 재정부장직과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또 98년부터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부회장과 수석부회장직을 맡아 직장기독인 연합사역에 헌신수범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 김회장은 앞으로 1년간 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것만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흥년을 낼 수 있어도 이것만은 흥년을 못냈다. 세상의 사람들마다 얼굴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고 손끝이 다르고 성질이 다른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믿는 도리가 같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저들이 슬금슬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기독교를 군사하게 바꾸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기독교와 비슷한 흥년을 내고 있지 않은가? 저분들이 언제 주님의 부활의 날에 주일을 지냈는가? 언제 저들이 주일 낮에 예배를 받았는가? 언제 저들이 밤에 예배를 받았는가? 언제 저들이 삼일절에 있었는가? 언제 저들이 새해기도가 있었는가? (불교에는 있었지만) 언제 저들이 창송기가 있었는가? 언제 저들이 발람교도가 있었는가? 언제 저들이 여몽교도가 있었는가? 언제 저들이 여의도강장에 모였는가? 언제 저들이 군대에 군복이 있었는가? 언제 저들이 학교에 교복이 있었는가? 언제 저들이 교도소에 형복이 있었는가?

언제 저들이 경찰서에 경복이 있었는가? 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들이 우리 기독교를 들어왔다. 기독교가 하는 것은 거의 흥년을 내고 있다. 기가막힌 정도로 흥년을 내고 있다. 그렇다 다 흥년을 낼 수 있겠지 그러나 이것은 흥년을 낼 수 없으니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어느 종교, 어느 종파도 예수의 부활은 흥년을 낼 수 없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윤희철은 있지만 그 어느 종파도, 그 어느 종파도 예수님의 부활만은 흥년을 낼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만의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신앙이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부활신앙의 증인이 되자.



정용진 목사
(홍천천주교회)

오늘의 묵상

무엇에 시간을 허비하나요?

왕을 위하여 평생을 바친 신하 한명이 죽어가고 있었다. 왕은 죽기 전에 그를 만나러 갔다. 죽어가는 신하에게 왕이 말했다. "오래 친구, 자네가 충성스럽게 나를 받들었으니 평가 높이고 싶은데, 한하는 게 있나? 무엇이든 들어주겠네." 그가 대답했다. "네, 전하, 전하께 받고 싶은게 딱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 한 '하루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단 하루만." 왕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쩌나, 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들 중의 한 명이지만 자네가 요청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선물을 주시고 유지하실 수 있네." 신하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그렇다면 속세의 왕을 모신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 건데 제가 무척 어리석었군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바라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소망이 무력해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덧없는 이 세상의 삶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 바로 죽음의 세계까지 지배하시는 예수그리스도신사.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 분을 멀리할 때가 있다. 그러나 세속의 일에 더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동정

★김주환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담임목사는 5월12일 오후7시 정기 회의를 주재했다.

★임택창 목사
춘천성서교회 담임목사는 5월9일부터 12일까지 18.19교구를 대상으로 순회 대성회를 가졌다.

★박상호 목사
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는 5월8일~10일까지 대한예수교교회(합동총)총회 주회를 서울 춘천교회에 참석했다.

★정성호 목사
샘밭교회 담임목사는 5월21일 오후1시 본교회 당에서 신복면 천전1리에서 70인을 초청, 경조친지를 배설했다.

★권오서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4월25일 호주에서 개최된 동부연회 감리사 협의회 연수를 마치고 5월4일 귀국했으며 11일 오전10시 신야회(이중열목사)에서 열린 교역자 회의에 참석했다.

★원기복 목사
광장교회 담임목사는 영동지역 산물 화재인을 위해 성금 24만원을 보냈으며 5월 22일 인근지역 노인들을 초청, 만찬을 배설할 예정이다.

★김정문 목사
동천교회 담임목사는 5월4일 60세 노인 70여 명을 초청, 버스 2대로 이산 현송사 독립기념관과 온천장 목욕 등 관광하고 5월12일 춘천교도소 재소자 중 생일을 맞은 79명에게 과일, 케이크, 커피, 음료수, 선물로 잔치를 배설했다.

★김영민 목사
우두교회 담임목사는 5월24일 서울충남교회 목사회식에 참석하여 기쁨을 이고고 동행했으며 축하하였다.

★윤대호 목사
늘푸른교회 담임목사는 4월24일 서울충남교회 목사회식에 참석하여 기쁨을 이고고 4월30일까지 부산지구 사목회를 인도했다.

★차관식 목사
제일교회 담임목사는 (동지방감리사)는 5월8일 오전11시 후평중앙교회(이한영목사)장로회 임식에 참석해 예배를 집도하였다. 취임사로 노창동 장로 김영재 장로

★김봉용 목사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대표간사는 5월4일 오후7시30분 성서회기도모임에서 "제비와 하리리"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김성우 목사
중앙교회 부목사는 4월20일 오후7시30분 성서회기도모임에 중앙교회 대회장전부를 인솔하고 참석해 설교하였다.

★신화국 목사
석사교회 부목사는 4월15일 오후2시 석사교회당에서 개최된 직장선교연합회 총회 예배에서 설교하였다.

★이기종 장로
감리교 전도 남신교회장은 5월11일~13일까지 제주도 여성교회 회관에서 임원총회를 주재했다.

★조남진 장로
순복음전장로연합회장은 4월24일부터 25일까지 대전 유성 경화장에서 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고, 5월 9일 경남 진해시 인제대학교총장(이운구) 취임식에 참석했으며 5월11일 탄광지역 결사자를 돕기 위한 급식소 개소식에 참석하였다.

★유태희 장로
기독교대한교회 장로회 동부연회 연합회장은 5월 7일 석사교회에서 가진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11일,12일 제주도 여성교회 회관에서 열린 전국남교회 연합회 임원회(이한영목사)에 참석하였다.

★신종환 안수집사
CBS아미인양재단장은 4월20일 오후7시 춘천교회에 출회하면서 기독교 천명실계구 5주년기념 "저마다 천사합창단" 초청공연에서 CBS 소년소년단원 협연했으며 4월29일 오전 11시 대전한남대 총장실에서 열린 한국출판협회 연례대회에 대표로 참석했다.

★이학규 장로
성서분부 사무총장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 여성교회에서 열린 기독교대한교회 남교회 전국연합회 수련회에 참가했다.

가정의 달에 가족사랑캠프 체험한 중앙교회

춘천중앙교회(사공 정목사)는 가정의 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만들고 화인하기 위하여 5월4일부터 5일까지 춘천 중앙교회 집다리를 휴양림 산장에서 가족사랑캠프를 통해 예수가족을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가족사랑캠프에는 19가정(장년 32명, 어린이 17명)이 참가했으며 여러가지 프로그램으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이웃과 가정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공동체의 삶에 대한 각자의 역할등을 체험할 수 있었다. 또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상호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은 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며 여선도와 남신도끼리의 솔직한 대화, 부모자식간의 대화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예수안에서 한 형제로서 다닐 수 있게 해 주었다고 성도들은 가족사랑캠프에 대한 소감을 얘기했다. 이번 행사는 제1남전도회가 주관했으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남편들이 부인의 발을 씻는 세족식 모습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정기총회 - 새회장 김용배 장로 전회장 이영규 장로 -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는 4월15일 오후2시 석사교회회관에서 제1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사업 및 재정보고에 이어 임원선거를 하였는데 김용배 장로(교우측), 수석부회장 민병업 장로(춘천시청), 부회장 박상원 장로(춘천우체국), 민경욱 장로(강원농협), 박무일 장로(원단농업기술연구소), 감사 한성욱 안수집사(춘천지법행정), 김용일 안수집사(한림대학교), 총무 김상용 권사(강원대학교)를 선출하였으며 기타 임원들은 회장에 위임하기로 했다.

동연합회는 1990년4월17일 창립했으며 역대연합회장을 보면 제1대 허광용(90-92) 제2대 조충환(92-95) 제3대 김남철(95-96) 제4대 백기만(96-97) 제5대 조정일(97-98) 제6대 김영명(98-99) 제8대 이영규(99-2000) 제9대 김용배(2000-2001)회장이다.



직장기독인 정오예배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회장 김용배 장로)는 제9대 김용배 회장 취임 후 첫 정오예배를 1백여명의 각 직장선교회원과 함께 동부교회 성전에서 드렸으며 새로 단장한 식당에서 동부교회 여성교회 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점심을 들고 직장으로 돌아갔다.

동부장로교회(임성영 목사)는 직장기독인들의 신앙향상으로 직장복음화를 꿈꾸면서 교회 예산을 들이고 여선도들의 봉사로 정오예배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직장기독인 정오예배는 1992년부터 매월 1번, 주일 후 화요일 정오에 동부교회당에서 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동부교회는 예배장소 및 중식, 춘천지역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 직장인들의 신앙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5월 2일 정오예배 모습(조충환목사 설교)

가정의 달 경로잔치 배운 광장교회

광장교회(원기복 목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춘천시 효자1.2동, 공동지역 노인 80여분을 초청, 1일 경로잔치를 배설했다. 5월22일 관방비 2대로 노인

분들을 모시고 KBS방송 공개홀에서 TV프로그램 "가족사랑" 방청객으로 참여하여 함께 즐기고 국회의사당을 관광을 계획하고 있다.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레크레이션 하는 모습

4월 성시선교 후원자 명단

- 【정기후원자】**
왕순옥
성기는 정유양 최상호
홍순복 임은경 정순녀 김진원 최경용 허광용 정찬복 조정일 홍성온 정용현 황병산 오호수
조정국 김기태 임필남 유태희 김석범 윤진옥 장기영
김영명
유근창 조남진 한순수 조충환 한순수
- 【단체후원자】**
순복음춘천교회(김주환 목사)
【단체후원자】
강원도청신우회
신종환(유성건설)
이관호(알로에마일)
이영규(영광한의원)
조은복(메트로병원)
춘천직장선교연합회
춘천기독실업인회
- 【신문광고후원자】**
홍천장춘교회(정용진 목사)
강원대학교장신교회
강원도교육청직장선교회
이대재 조순옥(술로몬금속전문점)
춘천직장선교연합회
한국통신춘천전화국교회
한림대학교직장선교회
춘천중앙교회(사공 정 목사)
강원도청직장선교회
이병남 명영동

〈후원계좌〉 (예금주:조남진)
농협 203-02-280238 조충환 716-01-001389

선교회 소식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회장 김용배 장로)는 5월9일 오후7시30분 회대 식당에서 제11차기 1차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2000년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한글교육사업(신준호 회장)은 4월29일 오전11시 한남대학교 총장실에서 "홀리클럽,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하에 제1차 전국 회장 회의를 열고 공동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춘천지역을 대표해서 이학규 장로와 신종환 총무가 참석했다.

■기독교대한교회 장로회전국연합회(준비위원장 서성우 장로)는 7월6일~8일까지 황성근 총대변 한대성주교에서 "새로부르는 교회와 장로의 역할"이란 주제하에 1,500명이 참석해 여름수련회를 가진다.

■음악과 공연의 밤 행사가 전병목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5월2일 오후6시30분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에서 열렸다.

■예수사랑운동(Holy Kids)은 5월5일 강촌에서 휴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노방전양과 전도활동을 벌였으며 춘천성서회기도모임에 매주 참석하여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춘천기독교 학문연구회(예수가족)는 5월7일 오후7시 기악연 사무실에서 허문영(민족통일연구원 대표)선생을 모시고 정기모임을 가졌으며 6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7시 독서토론 모임을 운영하게 된다.

기악연 연락처 - 0361) 242-0191 (변경진 변호인)
기악연 사무실 - 춘천시 중앙로 3가 60-11

용천교회 소식

●용천신우회 창립1주년 기념행사
용천신우회(김차경 회장)는 5월2일 용천읍 "강남동대평"식당에서 허대범 목사(용천신우회)를 모시고 정오기도회 및 기념행사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27일 오후1시30분 용천읍 갈마리에서 위치한 문화예술회에서 김광섭 지도목사의 설교로 창립1주년 축하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구구종목을 마련한 친선경기로 기념행사를 가졌다.

●용천제일교회(김진석 목사)는 5월7일부터 9일까지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의 저자 박희진 장로를 초청, 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용천복음화를 위한 전도, 선교사업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용천희망교회(김광섭 목사)는 5월9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100여명의 노인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배웠고 11일 새신자 71명 초청 환영식 및 사랑의 친구를 나누고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농어촌 목회자 부부초청 선교대회를 개최하였다.

●용천 기독교대한교회 동지부 청년연합회 조직
청년연합회는 4월20일 6개교회, 70명의 구성원으로 조직되었으며 27일 임원회를 열어 본회의를 헌신하며, 동·서지부 연합제출회, 동산교회, 선교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용천지역교회와 초교와 부흥회에 앞장서기로 슬로건을 세웠으며 5월11일 동부연회 감동기 체육대회 참가로 연합회 활동을 시작했다.

고 문 이계호 감리사 경운진 목사

회 장 이상훈

부 회 장-김광진 강홍근 이인호

총 무 이상훈 서기-이상복 회계-김동주

재무부장-김정희 차장-김승갑 선교부장-김대현 차장-이복식

문화부장-전진희 차장-김재서 사회봉사부장-김동은 차장-김성열

감 사-심진환 김택기

용천동지부 청년연합회는 연합체육대회 결과 준금기 1위, 피구 3위, 배구 4위로 종합 3위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

동부장로교회 새성전 봉헌 예배드려

- 참립61주년 맞아 성전 헌당, 김창민 목사 설교 -
- 중부지역 7개교회 중 제일 큰교회 건축 2천명 일사수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동부교회(임신영 목사)는 5월7일 오후4시 새성전 헌당에서 축하객들과 본교회 성도들 1천5백여명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예배를 드렸다.

96년 3월4일 착공해 금년 3월10일 준공하기까지 IMF기간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든 성도들은 일생 일대의 기회라는 믿음으로 협력하여 거룩한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다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했다. 전 춘천기독교연합회장이며 통합측 중경노회장을 역

임한 김광목 목사(성광교회)는 축사에서 장로교회 중에 초교와 연합교회를 할 만한 교회가 없어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동부교회가 가장 큰 교회를 짓고 봉헌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동부교회는 94년 2월6일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5년동안 온건인이 한데 뭉쳐 성전건축의 대사를 감당한 것이다. 춘천시 조양동 137번지 706평의 대지 위에 77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938평(지하 2층, 지상9층)의 빌딩을 세우고 2억5천2백만원의 성물과 내부시설을 마련했다.



월드비전 강원지부 결식아동 급식소 개실

-탄광지역 학생, 노인, 장애인 250명 주 5일 급식 1억5천만원 들여 시설-
-불우한 이웃에 사랑의 손길 펴 도,시,군,각급학교,교회 후원식-

한국월드비전 강원지부(지부장 조남진, 관장 이훈순)는 5월11일 정선군에서 정선군수와 지역교회원 지역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탄광지역 결식아동과 두의 탁 제가노인 장애인에 대한 급식소 개실식을 갖고 급식사업에 들어갔다.

동사업은 탄광지역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대책을 심각한 문제로 여긴 월드비전 사업본부와 국내사업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춘천지부에서 운영하게 된다. 급식소 건물은 정선군이 제공하고 월드비전은 급식운영차량 내부시설 등 1억5천만원을 투입했다.

급식사업은 매주 5일간 중식 또는 식식을 학교나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여 공급하며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인원을 배정하고 대상자는 생보자, 소년소녀가장, 조부모세대아동, 결혼이주여성, 저

소득실직가정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거동불능장애인, 부양받지 못한 장애인으로 읍면 보건소 진료소 공무원 등을 통해 또 이강단, 교회, 부녀회, 주민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원활한 급식을 위해 조리, 배달, 운전자 등의 뜻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250명 급식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대상자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강원도민들의 이웃사랑의 손길이 결실해야 하겠다. 강원도 시, 군, 교육청, 각급학교, 교회, 도민들의 작은 정성과 관심을 바라고 있다.

연락처 : 춘천시 효자1동 373-90 월드비전 강원지부 0361-254-7244 / 팩스 0361-251-1164



월드비전 춘천어린이집 나눔데이
신순철 원장은 어린이집 어린이들, 학부모 160명과 함께 4월 22일 원주드림센터를 견학했다.

제2대 인제대학 총장 이윤구 박사



이윤구 박사는 61년 기독교 세계문화사 총무로 출발, 91년부터 96년까지 한국 월드비전(구 신명회)회장, 86년부터 지금 까지 한국기독교사회복지회회장으로 활동한 기독교계의 원로로 99년부터 자문교수로 인제대와 인연을 맺었으며 금년 5월1일 학교법인 인제대 제5대 총장에 선임되어 5월9일 취임식을 가졌다.

이윤구 박사는 우리나라 대학은 지역사회와 별 관계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모든 일에 시민들이 인제대는 우리의 대학이라는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 남북 7천만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인의 교류에 앞장서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북이 하나로 뭉치면 21세기 문화선진국의 대열에 항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인제대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합의 교수자원을 아프리카로 보내고 아프리카인들을 불러들여 연수시킴으로써 세계공동체 발전에 기여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구 박사는 춘천성서회 운동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통일사업의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성서신론의 칼럼을 통해 독자들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UN아동기금 이집트, 인도, 방글라데시 대표로 활동했던 이윤구 박사는 96년부터 "우리 두가정이 북한 한가정 돕기운동"을 펼쳐왔으며 요르단 국왕 훈장, 국민훈장 동백장, 무궁화장을 수상했고 저서로는 「새벽을 열며」 「뉴욕에서 조국을 생각한다」 등이 있다.

"여인들이여, 머리에 수건 좀 써 주소!"



변석규 목사
(신림장로교회)

유대인중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머리에 늘 수건을 달고 다녔다. 그 이유는 지나가다가 온연중 여인의 얼굴을 보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 간혹 욕을 범할까봐 아내 눈을 감고 가다가 담배라든가 이마를 부딪혀 상처를 입은 것이 때문이었다.

요즘 신세대의 문화는 조금만 들여다 보아도 감히 눈뜨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눈을 감고 다닌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TV나 신문, 컴퓨터를 보면, 들어내놓고 '바' 달라는 상업적 노출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인들, 간혹에 완전자 노출된 상태지요. 옷이나 헤어스타일, 흉인

이나 막, 특별히 성계방은 혐오감을 줄 정도로 우리 주위에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인간 신문에는 성적충동이나, 수치를 유발시키는 전연광고도 자주 눈에 띄입니다. 한 예로 이런 류의 광고 시리즈도 있습니다.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자동차 선전도 아니고, 포주들의 술안배도 선전도 아니고, 한 인티콘 회사의 전연광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잡지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인기 프로에서도 특징적인 은밀한 성의아기를 경쟁이나 하듯 폭로하고 있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말하길 그들은 충직한 자기 고백을 서슴치 않는다 합니다. "나 이렇게 막 살았어, 그러니 나 좀 봐, 그러면 독자나 시청자들은 은밀히 이들의 삶을 은밀히 엿보면서 대리만족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창립22주년 맞은 평화감리교회

춘천평화감리교회(한 목사)는 창립 22주년을 맞아 먼저 4월22일 오후 7시 본교회당에서 시민초청 음악회를 열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찬양의 울림에 젖어 기쁨을 맛보았다. 특히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우두교회 백합성가대와 변영교회 성가대가 동참하여 감사와 기쁨이 더했다. 이날 창립예배를 인도에 참여한 8개 살림교회 목회자들과 미국신교사도널 목사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성대하게

드렸다. 또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도널 목사를 강사로 부흥집회를 가졌으며 4월 27일부터 5월4일까지 인도 목사 일행의 한국여행과 5월5일부터 8일까지 인도 목사들의 능력예배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평화교회는 설립 후 22년 동안 성장을 거듭하면서 복음을 세계에 수출하는 자람을 위한 교회로 발전하여 인도 지역 선교를 위해 역량을 다하고 있다.



성도들을 향한 편이 있습니다. "여인들이여 수건 좀 써 주소!" (고린11:2절 이하 참조) 이 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며,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딤후 3:16)라 했으니 말입니다. 바울은 여인들이 예배때 머 수건을 써 얼굴을 가리워야 할 당위성을 설교합니다. 당시 고린도지역은 종교적으로 혼탁한 도시요, 상업적 발달과 아울러 '밤의 문화'도 화려했습니다. 특히 신전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이 많이되던 시대로 내려와 음란의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역시 문화적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방문화와 유대문화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교회 안의 대부분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전통에 따라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에 익숙치 않은 로마 귀족 부인들이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성도나 교회 역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벗는 일에 자유로울 수 있으나, 언약한 자들을 위해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의 의의 흰 옷으로 가릴 수 있는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인들을 보면서 음란죄를 범하지나 않을까? 그로인해 교회의 하나됨이 상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유대전통에 따르면 처녀가 거리에서 머리를 드러내놓는 일은 창녀나 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내전 성립 주인의 일인 나를 취하소서 하는 음란의 물 것일 수 있습니다. 자유로움이 언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자유함을 아직 누리 지 못한 자들에 대한 바울의 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드러내는 일에 익숙한 자들이 많습니: 아름다움을, 이름을, 학벌을, 출신을, 자식을, 부요함을, 교회의 크기를, 아니 경건의 행위인 믿음까지도. 그러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짓게 하는 일, 상처주는 일, 어찌에 무거운 짐을 하나든 없는 일이라던지 그런 드러남이. 값진 것, 아름다운 것, 전리는 드러날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드러내기 좋아하는 자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고 합니다. 성도나 교회 역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벗는 일에 자유로울 수 있으나, 언약한 자들을 위해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의 의의 흰 옷으로 가릴 수 있는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봄내 호스피스

봄내호스피스 제2기 자원봉사자 모집

사람과 마음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생명을 제공하는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고통받는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따뜻한 자리에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신청기간 - 2000년 6월 15일까지
대 상 - 만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가능
모집정원 - 100명 (선착순)
회 비 - 1인당 2만원
교육기간 - 2000년 6월19일~4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점심제공)
교육장소 - 소양대일교회 (피계동 한주아파트 입구에 위치)
전화신청 - 0361) 263-5454
팩스신청 - 0361) 262-0999
후원신청 - 200-170 춘천시 피계동 93-1 봄내호스피스 앞

봄내 호스피스 대표 이주호 목사

말미암은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말미암은 말미암은에 걸려 고통당하는 분으로 담당 의사(병원)로부터 의료적인 치료비가 전담을 받은 환자 가정 및 병원에서 전인격적으로 돌보아 드립니다.
(문의) 0361)263-5454 봄내 호스피스 사무국

한국기독교 미술작가 초대전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2000년 한국장로교회의 일환으로 5월16일 ~ 21일 오후6시까지 강원평생교육정보관에서 열렸다.

초대전은 장로교회 준비위원회 강원지역(대회장 임신영목사)과 한국기독교미술협회가 협력하여「지구공동생태」란 주제로 수상작가별 총 120여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행사준비로 수고하신 전진구 목사(예수문화관)는 기독교가 초대전을 통해 하

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경이로움을 깨닫고 소중한 생명 살리기 운동에 춘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전시일정 - 5월16일~21일
개관시간 - 오전10시~오후6시
장 소 - 강원평생교육정보관
(구 춘천중앙도서관 축복본관 맞은편)
문의전화 - 0361) 253-2782 / 254-6998 전진구목사(영광교회)

어린이전도협회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홍천·춘천·철원·화천 4개지역 순회일정 안내)

지역별	강습기간	장 소
1차 홍천	6월12일~13일	홍천제일장로교회
2차 춘천	6월15일~16일	춘천제일감리교회
3차 철원	6월19일~20일	춘천제일장로교회
4차 화천	6월22일~23일	화천제일감리교회

문의처 : 0361-253-1443 / 017-378-1349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

예수전도단 예배세미나

예수전도단 춘천지부(대표 김봉욱목사)는 5월30일부터 6월2일까지 춘천중앙감리교회 교육관에서 참된 예배자로 훈련받기 원하는 계층을 초월한 모든 분을 대상으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세미나(Worship Seminar)를 개최한다. 이날 초청 강사는 서울예수전도단 찬양사역 책임자인 박희광 강사이다.

(세미나 참가방법)

- 접수비: 일반 2만5천원 / 5인 이상 단체 2만원
- 대 상: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분이면 누구나 (선착순150명)
- 장 소: 춘천중앙감리교회 교육관-춘천연고 아래
- 신 청: 접수비를 입금하신 후 전화주세요 (0361-252-1128)
- 우체국 - 202267-0050576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 후 원: 베드로침례회와, 베드로신경전과, 춘천성서회동본부
- 문의처: 예수전도단춘천 0361-252-1128

성년감사에배 드린 중앙장로교회

춘천중앙장로교회(사공정 목사)는 5월14일 오후7시30분 본교회당에서 80년생부터 81년 5월15일 출생한 교회 청년 25명을 대상으로 성년의 날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는 성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뜻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이었으며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 헌신하겠다는 신앙고백의 시간이 되었다.